

학생안전 위해요인 사전 제거

도 특별사법경찰, 개학기 학교주변 식품 합동단속... 매점 불법유통 납품업자 적발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개학기 학생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2월 26일부터 기획단속과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2개반 111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학교매점 등 어린이보호식품 판매업소 105개소, 청소년 유통업소 43개소 총 148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차단 등 청소년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기획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여성단

체, 학부모, 생활안전지킴이와 심야시간대 전주 신시가지,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선정, 3회 55명이 홍보용 플래카드, 전단지 4,000장을 제작, 학교주변 불량식품 및 청소년 유통업소 불법행위 가두 캠페인 및 전단지 배부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개학기 학교주변 식품 및 청소년 유통업소 기획단속 내용은 '어린이보호식품 판매업소'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선입선출 등)의 적성 여부 ▲정서저해 식품(돈, 화투, 담배 도안이나 용기사용) 등의 판매여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준수여부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의무 위반행위(노래방, PC방, 비디오파 등) ▲청소년에게 담배·부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A식품 등이 식품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며 유통 납품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북도내 학교매점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식품인 햄버거, 빵류, 소세지 등 냉장보관(0~10℃) 제품을 냉장시설이 되어 있어도 가동하지 않거나 냉장시설이 없는 1톤 탭차를 사용해 14~18℃로 불법유통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납품업체 분사 수사결과 냉장고에 냉장제품이 보관되어 있으나 냉장고를 가동하지 않고 20℃로 보관중이었고 우유, 빵류, 소세지, 과자류 등 위생상 더러운 바닥에 보관 중 단속되었고, 이 같이 방치된 어린이보호식품들이 전북도내 총 33개 학교매점에 51,900개가 팔려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차단 및 청소년 보호를 통해 학생 안전요인을 사전에 제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종의 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도민들께서도 민생침해사범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3601)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풍년농사 지원합니다” 16일 익산 살기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조배숙 국회의원, 정현을 익산시장, 고흥주부모임, 병농협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1,200여명이 참석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풍년농사지원 전국동시 스타트-업 행사를 가졌다. <관련기사 6면>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전주시장 예비후보 동향

“전주지역 주민참여 교육정책협의회 신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지역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지역 학생수의 40% 정도가 재학하고 있는 전주 교육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주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시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부모,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전주 주민참여 교육정책협의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전주지역 핵심 공약으로 구도심과 학교의 상생정책, 혁신도시 및 예곡시터 등 신도시 지역 교육여건 개선, 특수교육진흥원 설립, 탄소산업·드론·음식당의 도시·문화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전주다움·꽃심 전주교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들의 전주 근무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주가 가진 자원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주다음 교육 등의 꽃심 전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기초학력보장제 시행할 것”

전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전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북지역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다.

천 예비후보는 “태어난 집은 달라도 교육은 공평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간, 세대 간에 나타나고 있는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공교육의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전북이 앞장서 기초학력보장제도를 제정하여 기초학력만족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천 후보는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단계적으로 증원배치하고”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임용대기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학교에 ‘학습코칭팀’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의 경우 교육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인식하고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혁명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세월호 4주기, 무엇을 해야 할지 되새겨야”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사람중심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되새겼다.

김 예비후보는 16일 “여전히 세월호는 전주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잊을 수 없는 큰 아픔이다. 그 아픔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거나 작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슴 아픈 오늘,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꽃같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 분

들과 아픔을 함께 하겠다”고 추모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날 그는 전주 풍남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김 예비후보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던 국민과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은 뼈까지 되어 무책임한 국가기능을 바로잡는 촛불을 밝혔다”면서 “눈물처럼 흘렸던 추모는 무책임했던 국가를 심판하며 탄핵과 정권교체의 초석이 됐다”고 했다.

특히 “오늘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추모의 의미를 넘어 살아남은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되새기는 날”이라며 “전주를 사람중심 도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근 기자

일자리 창출·대중교통... 분야별 공약 제시

엄윤상 전주시장 예비후보

엄윤상 민주당 화담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일자리 창출·대중교통’ 등 분야별 중점 공약을 발표했다.

엄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의 기본 틀을 조기에 수립하고, 핵심·분야별 공약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했다”면서 “이에 맞는 우선순위 정책과 예산확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중점 공약은 ‘일자리 창출

과 장년층 노후 지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주·완주 통합’이 주요 골자로 구성됐다.

엄 예비후보는 “지난 20여 년간 관료 출신 시장이 이끌어온 전주 경제는 발전은 커녕 오히려 후퇴했다”면서 “전주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부족으로 매년 5000여 명의 청년이 전주를 빠져나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교통을 시민 편의로 개선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흐름을 시 전역으로 유도함으로써 전 지역의 균형적인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와 관광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근 기자

지선 출마 민주당 후보 ‘속속’ 윤곽

전북도당, 1차 경선 결과 발표
익산시장 후보 3명 2차 경선
광역·기초의원 결과도

더불어민주당으로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북지역에 출마할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6일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후보로 송하진 현 지사가 선출된 가운데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단수 또는 경선 절차를 거쳐 후보들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익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1차 경선에서는 5명의 예비후보들이 참여했고, 이 중 상위 3명만 2차 경선을 치르게 됐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 집계와 안산번호 선정인단 ARS 투표 집계를 합산한 1차 경선 결과 김영배 전 도의원이 30.10%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대중 전 도의원(30.14%), 3위는 김성중 전 익산시장(15.79%)이다. 1차 경선에 참여했던 전완수 변호사와 황현 전 전북도의회 의장은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해 2차 경선 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상위 3명을 대상으로 조만간 2차 경선을 벌여 최종 익산시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다.

이날 익산시장 1차 경선 결과와 함께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경선 결과도 발표했다.

다음은 기초·광역의원 경선 결과 발표 내용이다.

◇전북도의회 의원
▲전주시 제6선거구 김희수 ▲전주시 제7선거구 송성환 ▲전주시 제8선거구 김영철 ▲군산시 제3선거구 조동용 ▲군산시 제4선거구 문승우 ▲정읍시 제1선거구 김철수 ▲정읍시 제2선거구 김대중 ▲남원시 제1선거구 이정민 ▲남원시 제2선거구 강용구 ▲김제시 제1선거구 황영석 ▲김제시 제2선거구 나인권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진안군 선거구 이한기 ▲무주군 선거구 황의탁 ▲장수군 선거구 이희숙 ▲부안군 선거구 최훈열

◇기초의원(전주시의회 의원 등)
▲전주시 나선거구 송승용, 최주만, 박병술 ▲군산시 나선거구 우종삼, 박홍근 ▲군산시 사선거구 김경식, 지해춘, 김중순 ▲정읍시 마선거구 기사재, 김석환 ▲김제시 라선거구 정형철, 오승경 ▲김제시 마선거구 안동희 ▲임실군 나선거구 장종민, 신대용 ▲고창군 가선거구 조만규, 이경신, 박정숙 ▲고창군 다선거구 김영호, 정길목 ▲고창군 라선거구 조규철, 김기현 ▲부안군 라선거구 김정기, 문찬기 /김진성 기자

전북도선관위, 남부시장상인회와 업무협약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전주남부시장 청년물에서 남부시장상인회와 홍보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청년 유권자 타겟 디자인 홍보용품 제작 ▲청년물 방문객 대상 투표참여 홍보 ▲청년물 투표참여 홍보시설물 설치 등의 방법으로 청년 유권자 대상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김진성 기자

특히, 관광객들이 단골로 방문하는 남부시장 청년물에서 다양한 선거홍보물을 이용하여 ‘부지런한 배짱이 선거길’을 조성하고 투표체험관 운영 및 청년 콘서트 개최 등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제고에 힘쓰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남부시장 청년물과 함께하는 ‘부지런한 배짱이 선거길’ 조성이 청년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실현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드루킹, 3월 기사링크 3190개 보내”

경찰 “김경수 의원에게”... 김 의원, 일반대화방 메시지 32건 확인
비밀대화방 메시지 115개 확인 안해... 마지막 확인 1월 ‘안희정 사진’

문재인 정부 비판성 댓글의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인 김모(48·필명 ‘드루킹’)씨가 김경수 민주당 국회의원에 지난 3월 한 달에만 3000개가 넘는 ‘실력’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의 일반대화방과 비밀대화방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두 사람 간 1:1 일반대화방은 2016년 11월부터 개설됐으며, 비밀대화방은 올해 3월부터 개설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메시지를 거의 대부분 읽지 않았지만 일반대화방에서는 32개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대부분 국내의 정세나 동향 등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김씨에게 한 고맙다는 취지의 의례적인 인사도 일반대화방에서 이뤄졌다.

다만 김 의원은 일반대화방에서 19대 대선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지난해 6월 3일 기사 제목·URL(인터넷 주소)이 담긴 메시지 1개를 확인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는 올해 3월 3일~3월22일까지 김씨가 일방적으로 김 의원에게 대량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비밀대화방에서 김씨로부터 받은 메시지 115개를 읽지 않았으

며 비밀대화방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가 비밀대화방에서 보낸 메시지 115개에 포함된 기사 URL 수는 무려 3190개에 달한다.

서로 다른 3190개의 기사가 아닌, 여러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동일한 기사의 각 포털 URL 합산치가 3190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김씨는 1월 17일 방북후 다음날 새벽까지 평창 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 정부 비판댓글의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때문에 불과 18일 동안 3000개 이상의 기사 URL을 수집한 점, 김씨가 수집한 기사의 보도 시점이 모두 3월이라는 점에서 김씨가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은 올해 1월22일로 밝혀졌다. 그 이후로는 김씨가 보낸 메시지를 읽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이다. 최종 확인 메시지 내용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김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느름나무에서 강연한 사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갯수가 3190개가 아니라 URL 숫자가 3190개라 정확하게 기사가 몇 건인지, 겹치는 게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